

# 주안예교회 News InChrist

주.안.예.교.회.뉴.스.레.터.



01  
Jan. 2022  
Vol.10 No.01

- 주안에 사역
- 주안에 말씀
- 교육부 / EM 소식
- 코람데오 소식

주안예교회 InChrist Community Church [f](#) [ig](#) ph. 818.363.5887 | 문서국 e-mail: icccnews123@gmail.com | web: icccla.org



사역국 부스마다 함께 일할 새로운 일꾼들을 유치하는 모습이 진지하다. <사진: 박민 기자>

## 재능과 소질 살려 '착하고 충성된 일꾼'

### ■ 사역박람회

2022년을 시작하며 각 사역국에서는 함께 섬길 팀원들을 맞이하는 사역 박람회가 1월 16일, 주일 2부와 3부 예배 후에 각 채플별로 진행되었다. 사역국 별로 테이블을 마련하고, 섬겨야 하는 내용을 소개하면서 각자가 지니고 있는 특기나 소질에 따라서 몸담고 섬길 사역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행사였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자신에게 맞는 사역국을 만나지 못해서 마음을 정하지 못하셨던 교우들에게 유익한 길잡이가 되었던 이번 2022 사역 박람회를 통해서 135여명의 교우들이 새로이 사역에 동참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인생의 여정에서 섬김의 본을 보이는 소중한 일꾼으로 성장하게 되길 기대하며 응원한다.

| 오희경 기자 |



■ 주안에세마장학회

## ‘자녀들 가슴에 말씀을’ 2022년 성경암송 시작

올해 4년째를 맞이하는 주안에세마 장학회가 올해도 장학금 지급 기준을 성경 암송 실적으로 정하고 암송해야 할 구절을 발표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성경 암송 방식을 도입해 ICKidz에서 대학생들까지 60여명이 누적 380장의 성경을 암송하는 등 큰 호응과 성과를 거뒀다. 구약 신명기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평생 잊어버리지 않도록 했던 것처럼 주안예교회와 학부모들도 우리 2세 자녀들에게 귀한 성경 말씀을 가슴에 심어주는 데 역점을 두고 격려하고 후원하는 데 관심을 쏟고 있다.



올해 암송해야 할 성경은 다음과 같다.  
신명기 6:1-12 2, 마태복음 5:1-20 3, 시편

92편, 시편 27편, 에베소 6장, 하박국 3장이다. 그리고 잠언 3장(보너스 장학금 지급) 암송 일자리는 2월부터 7월까지 매월 4번째 토요일(밸리 채플)과 주일(OC채플)로 학생들이 장학위원들 앞에서 암송해 평가받게 된다. 이 기록을 바탕으로 오찬국 장학위원장은 “지난해 35명의 장학위원이 45,200달러의 장학기금을 기부해 주셔서 2세들을 격려해 주셨던 것처럼 올해도 많은 분이 참여해 기쁨과 보람을 나눌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암송 관련 문의는 교육부 담당 전도사에게 하면 된다.

| 조용대 기자 |

■ 주안에 사역세미나

## 하나님께 받은 은혜, 이웃사랑의 동력으로

지난 1월 9일(주일)과 16일(주일) OC 채플과 1월 11일(화요일)과 18일 양일간 밸리 채플에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원리인 ‘주안에 사역’ 세미나가 최혁 담임목사의 강의로 진행되었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역은 그냥 믿음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왕이면 사역이란 무엇이며 누가 사역을 하고 또 사역의 목적과 사역을 감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배우고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역의 척도와 사역을 이루기 위해 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점들을 알게 되어 너무 감사하고 도전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라’인데, 사역도 사랑이 없으면 의미도 없고, 오래 가지 않아 힘을 잃고 말 것입니다.



4주간 진행해야 하는 강의를 성도님들을 위해 2주간으로 함축하여 말씀을 증거하신 최혁 담임목사님과 사역을 위해 열심하신 성도님들이 더욱 하나님 사역을 잘하기 위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새로운 터닝포인트가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특히 OC 채플에서는 주일 1시 예배를 마치고 잠시 휴식을 취한 뒤에 3시부터 2시간

동안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봉사국(국장 김영희 권사)에서는 바쁜 중에도 간식과 음료를 준비하여 성도님들을 섬겨 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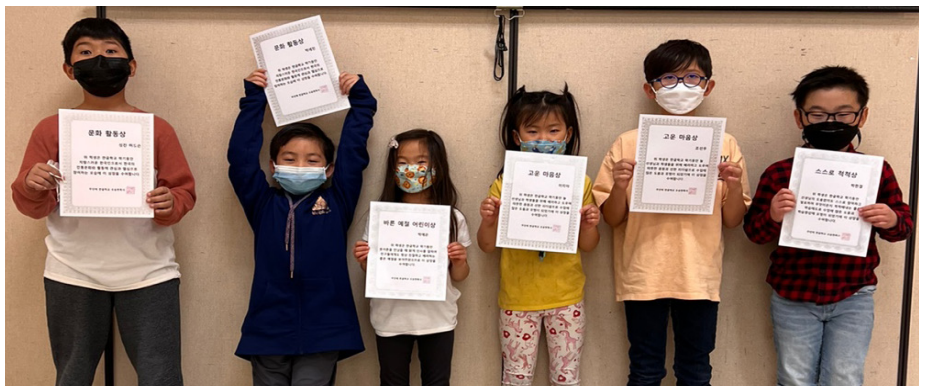
겨울 날씨로 인해 해가 어둑어둑 해서야 집으로 향했지만 모든 성도님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득했습니다.

| 이광영 기자 |

## 엄마, 나 상받았어요!

주안에 한글학교가 2021년 9월 12일부터 2022년 1월 16일까지 총 16주 간의 학기를 마치는 종업식을 가졌다.

그동안 열심히 배우며 한국의 뿌리를 기억하려는 학생들의 열정으로 여러가지 이름의 특색있는 상(멋진 발표상, 바른 예절상, 고은 미소상, 씩씩한 어린이상, 스스로 척척상, 근면 성실상, 멋진 우정상) 들을 이끌어 내며 만족스러운 마무리를 할 수 있었다.



■ 브니엘 카페 오픈

# 따뜻한 커피 · 달콤한 단팥빵... 되찾은 작은 행복

기다리고 기다리던 브니엘 카페와 베들레헴 빵집이 지난 1월 첫 주일부터 다시 문을 열었다.

"아! 이 맛이야" 하시며 감동하는 성도님들, 오랜만에 한자리에서 정담을 나누는 모습들을 보면서 봉사자들도 활기차고 신이 났다.

최고급 커피와 함께 베들레헴국에서 만든 단팥빵, 옥수수빵, 마늘빵, 추러스 등이 있으며, 브니엘 카페는 마음의 쉼과 친교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장소이니 성도님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

| 임용자 기자 |



■ 주안에말씀

## ‘새해를 말씀과 함께’ 성경통독 열기 계속된다

2022년 새해에도 평신도사역원의 18주 성경 통독 프로그램인 ‘주안에말씀’에 30여 명이 등록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하는 삶을 통해 은혜를 받고 있다.

월요일 저녁반과 토요일 오전반이 개설돼 ZOOM을 통해 주 1회 함께 읽고, 나머지 날은 매일 10장 정도씩 각자 정해진 분량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완독하는 이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에게 믿음의 진보와 경건 훈련에 큰 유익을 준다. 혼자서 성경을 끝까지 한번 읽기가 쉽지 않고 대부분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은혜를 받은 분들은 계속 등록해 “말씀을 읽을 수록 성경 전체의 맥이 잡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점점 더 선명하게 다가온다”고 간증한다.

한편 EM 성도들과 ICY 학생들 77명도 IC WORD 훈련에 참여해 매주 월요일 성경을 읽고 주중에 각자 읽는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하고 있다. <관계기사: 10편>

| 조용대 기자 |



■ 화제의 가족/ 이원근 안수집사



### 온 식구가 성경통독반 등록

작년, 힘들었던 시간을 보내고, 나는 실패자라고 느끼면서 절망하던 시기를 지나며 배운 것은 제가 불잡을 건 하나님, 곧 말씀밖에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며 주안에 말씀 훈련이 있다는 소식에 설레고 두근거리는 마음에 신청했습니다. 부모님(이원근 안수집사, 이명주 권사)도 신청했다는 것은 훈련이 시작되고 나서 알았습니다. 동생도 EM에서 시작한 IC WORD를 하고 있는데, 서로 다른 스케줄로 바쁘지만, 우리 가족이 같은 방향을, 같이 하나님 바라보며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에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제 월요일 저녁이면 각자의 자리에서 성경 통독을 합니다. 비록 몸은 다 다른 방에 있지만, 마음은 하나이고 같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에 힘이 나고 든든합니다.

| 이의연 성도 |



■ 사역국 현장에서.../ 베들레헴국 김준억 장로

## ‘모든 교우들이 나보다 유능’ 몸에 벤 겸양

‘바나바’ 초대교회 사도 ‘바나바’의 성품인 관대하고 자신의 귀한 것을 드리며 전적인 헌신의 모습을 닮으려 노력하는 숨은 일꾼 김준억 장로님을 소개드립니다.

믿는 사람들에게겐 주일에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며 주의 종들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채우는 행복이 있다. 그런데 나에게겐 빨리 채플에 출석하는 주일에는 한 가지 더 즐거움이 있다. 예배 후 브니엘 카페에서 단팥빵을 사먹는 것이다. 쿠키들도 있고 다른 빵들도 있는데 유별나게 난 달달한 단팥빵을 좋아 한다.

그동안은 빵을 살 때마다 무심코 지나쳤는데 얼마 전 이 빵들을 우리 교인들이 직접 만들고, 더욱이 고회를 훌쩍 넘기신 김준억 장로님이 만든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브니엘 빵들을 더 좋아하게 되었다.

김 장로님은 매주 토요일 오후에 교회에 나와 밀가루 반죽을 하고 이것을 하루저녁 숙성시켜 부풀게 한다. 그리고 다음 날 주일 새벽 4시에 나와 빵을 만들고 굽는다고 한다. 8시 1부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일찍 준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집으로 가서 준비하고 다시 교회에 나와 10시 30분 예배에 참석한다. 주일 새벽 4시면 보통 교인들이 아직도 단 잠을 자고 있을 시간에 아무도 안보는 곳에서 숨은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충성하신 것이다. 여러 종류 합해 200~400개의 빵을 매주 만드는 봉사를 3년째 계속하는 것이다. 장로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김 장로님은 평소 하나님과 교회를 섬길 때 항상 다른 사람들이 다 장로님보다 유능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섬기는 자세로 살아간다고 한다. 또한 어려움을 당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편에서 위로와 격려하며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멋진 생활 철학을 가지고 수고하시는 장로님에게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장로님이 건강하시기를 기원한다.

| 나형철 기자 |

### OC 안수집사회장 김재동

몸된 교회에 지체로써 맡겨주신 일을 성실하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안예교회 안수집사회를 마음껏 사용하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벨리 안수집사회장 유월리엄

아직도 여전히 믿음이 연약하고 모든 면에 부족함 투성인 저를 일꾼으로 택하신 하나님의 높고 크신 뜻을 다 해야 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안으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밖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일에 쓰이기 위해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직분에 임하는 저희 여섯 사람 (회장: 유월리엄 집사 부회장: 윤영섭 집사, 총무:

### ■ 2022 안수집사회 신입회장 각오

윤성문 집사, 서기: 최종선 집사, 회계: 강대니 집사, 고문: 이현보 집사) 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행하심을 통해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가르치셨던 행적을 본받아 충성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며, 목회자께 순종하는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더욱 낮아져서 겸손함으로 성도들을 내 몸과 같이 살피는데 힘쓰며, 맡겨진 사역에 열심을 다하는 청지기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헌신할 것을 마음으로 결단합니다.

모든 일에 본이 되며, 솔선수범하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도록 헌신하고 충성하는 주님의 종인 안수집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2022년에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집사님들과 서로 협력하여 성장하는 안수집사회가 되도록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 EM Praise Night: Jubilee



## The Year of the Lord's Favor...

"Jubilee" was the theme of EM's Praise Night that ushered in 2022. The omicron surge couldn't stop ICCC EM from lifting up joyful praises. Members gathered in the dwelling of the Lord in following our forefather David's heart of praise. ICY,

EM, elders, eldersses, and deacons became one community, and Pastor Jennifer's message explaining the significance of Jubilee - "the year of the Lord's favor" made it ever clearer as to why the event of Jubilee in the Old Testament has

significance for present day Christians who are liberated by Jesus' life, death, and resurrection. Dancing, singing, and cheers for God filled the air as the ICCC EM congregation launched 2022 with rejoicing hearts! | Monica Kim |



## God's Faithfulness

Despite the limited amount of time we had, it was a time that God showed His faithfulness to me through it all. Everyone who served for Jubilee was on board and worked together to prepare the best we can. I was very nervous because there was no time to prepare due to ICY retreat and End of the Year service, but God showed me that He is in control, He is leading us, He is faithful and all I had to was trust in Him. It was a time of learning humility once again, learning to be vulnerable in every area in my life with Him. I can confidently say that we didn't prepare Jubilee for our own glory, but for His glory and to Him only. I give Him all the glory. | Jennifer Oh |

## Praise Night Renewed the Fire

After preparing for a whole bunch of different events before praise night, honestly I was pretty tired and burnt out. Part of me really just wanted to receive, but another part of me didn't want to let go of this opportunity to serve. Thank God I was able to be part of praise team hahaha. As we were preparing I learned many different things about what kind of heart I should have towards preparing for worship. My eyes were opened to how much better I could do as a praise leader and what kind of preparation I should be doing throughout the week. This praise night renewed the fire I once had for praise team once again. I realized how much I was lacking as a servant of God. I was humbled and I hope that in the near future I will be able to serve for another praise night again.

| Matthew Yang |



■ 'I Love my Church' Day



## Levite For a Day

"Church clean up tomorrow 7am-3pm! Donuts and coffee provided after dawn prayer. Please come out and share your love!" The conception of church clean up began with the idea of wanting ICCC EM to experience the heart of the Levites who cleaned and prepared for worship at the house of God at the start of a new year. The gesture of loving God through loving the church rapidly spread like wildfire as "I Love My Church Clean Up Day" soon became a collaboration of elders,

eldresses, deacons, ICY, and families coming together. With sleeves rolled up, elders and deacons washed away layers of dirt and dust that was on the first floor of the fellowship hall, which was built up since the pandemic. ICY students cleaned the second floor, Coram Deo dusted and wiped the choir rooms, and EM took charge of the main sanctuary in preparation for Lord's Day services. What a beautiful sight it must have been in God's eyes to see the entire church joining hands as an expression of ICCC's love for God and His Body. | Monica Kim |



## From Empty House to Full House

If a person is saved and baptized but does not have the protective influence of the Holy Spirit, then with a force exceeding the past, the spirits of evil returning to the empty house that was once swept and cleaned. This spiritual danger mentioned in Matt 12:43-46 worries me whenever I encounter.

When one is actively trying to ignore and discontinue the bad habits he might be enticed to return to his bad habits and get worsened. On top of abandoning the bad things, find, fo-

cus and replace with good things will suffice for better condition.

The devil knows our vulnerable spot. He will keep "checking in" to tempt us. Therefore, repentance involves two steps, not merely eliminating the negative in our lives but also replacing the negative with positive attitudes and actions such as prayer, bible study, service, and response to Holy Spirit which will keep our house to be safely embarked on God's Salvation Project. Then the assaults from devil will stop and our house will be

fully occupied by God.

EM kicked off the New Year with Church Cleaning Day on 1/15/22 and right after started the 'IC Word Discipleship training series' on 1/17/22. It will held for 6 weeks and have more than 70 participants. Satan's perpetual desire to occupy our cleaned house have failed under God's provision to make ICCC from empty house with Church Cleaning Day to full house with IC Word in this spiritual warfare. Praise the Lord!

| Misook Seo |

■ 사역국 소식/ 문서국 신입기자



유영애 권사

부족하지만 함께 문서국에서 섬기게 됨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으로 믿고, 순종하려 합니다. 은혜로운 말씀으로 영적 양식을 공급받으며, 각자 처해진 곳에서 겸손히 섬기시는 아름다운 주안예교회 성도님들의 은혜로운 모습들을 글로, 또한 사진으로 담아내며 성도들에게 진한 감동을 주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사역을 통해 나의 좁은 시야가 더욱 더 넓어지고, 연약한 믿음이 더욱 성숙되어질 것으로 믿고, 기회를 주신 문서국과,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김선희 권사

문서국에서 발행하는 교회 신문 "주안에"를 매달 받으면 늘 읽을거리가 생겨 반가웠다. 그러나 나같이 아주 평범한 할머니가 참여할 수 있는 부서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쉽게 접근하지 못했었다.

사실 교회 뜰만 밟고 열심히 드나들다 보면 염치라는 단어가 발동하게 된다. 그래서 등록 교인이 된 후 5년간 기독교에서 기도하는 권사로 겨우 체면치레는 하면서 성전 뜰을 밟는 교인이었음을 밝힌다.

뜻하지 않게 문서국 소속이 되고 나니 정신이 번쩍 드는 듯했다. 고령의 나이인듯 하나 아직 고령장치를 골방 할멈으로 내몰려서는 안 되겠구나 싶어 더 늙기 전에 새롭게 참신한 도전을 해 보고 싶다. 최선을 다해 겸손히 순종하는 문서국 신입회원이 될 것을 다짐해 본다.



드림교구 2목장 '분가'

2022년 새해부터 드림교구에서 일곱부부까지 제 2 드림목장으로 새살림을 꾸려 분가했습니다. 목자는 이규환 장로님과 유연화 권사님 부부. 1월 세 번째 주일 2부 예배 후 첫 모임을 식도락에서 가졌습니다. <임용자 기자>



밸리2권사회 월례회 '화기애애'

올해 마지막주 토요일 새벽 예배 후 제2권사회 월례회가 브니엘 카페 앞에서 모였다. 1월 모임은 새 회장단이 출범하고 첫 번째 월례회로 30여 명의 권사들이 모였다. 부회장인 유영애 권사의 기도로 시작하여 김선자 권사회장의 회의로 진행되었으며 다양한 안건을 논의하였다. <임용자 기자>



2세대들 붓글씨 솜씨

한국학교가 2021가을학기를 마치면서, 학생들이 그동안 만든 문화 활동 작품들을 모아 전시회를 준비했다. 서예, 탈 만들기, 연 만들기, 감사편지 쓰기 등등 34명의 학생들과 매주 다양한 문화 활동을 준비해 주신 선생님들과 함께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류명수 기자>



■ 코람데오 캠핑

## 모닥불 피워놓고 이야기꽃 1박2일

시간을 거꾸로 올라가서 2021년 12월 1일 밤 7시, Café Scent에서 2022년 새로이 한어청년부 KM [코람데오]를 섬겨 주실 분들과 청년 리더들이 모여 늦은 시간까지 신년 계획 및 방향성 등의 주제와 함께 맛있는 식사가 있었다. 신혼여행 중인 청년대표 간사 부부의 ZOOM 참석과 함께 모두 의지들을 새롭게 다지고 더욱 신앙 안에서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들로 짝꿍 채운 코람데오가 되어보고자 머리를 모았다.

많은 계획 중에 한가지였던 캠핑.....

한 달 전부터 기획하고 만반의 준비로 2박 3일의 일정을 준비하였지만, 위생 안전 수칙 및 예방을 위해 1박 2일의 단기캠핑으로 변경하였다. 각자 맡은 준비와 사전답사 및 선발대와 후발대 선정 등으로 교회에서 40분 정도의 가까운 거리였지만 알차게 준비해서 올라갔다.

선발대 팀의 사랑과 희생으로 금요일 낮 시간부터 교회에 모여 캠핑그라운드에서 있을 식사 준비 및 1차 준비물들을 챙기고 출발하여 텐트 설치 및 자리를 잡고 저녁 식사 준비까지 완료하였다.

후발대들도 속속 벨리 채플에 모여 각자 부수적인 준비물들을 더 챙겨 교회 밴 카풀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하였다. 파스한 느낌의 주황 전구 빛과 FIRE RING에서 타오르는 모닥불이 멋지게 맞이해 주었다. 반갑게 인사가 끝나기 무섭게 따뜻하고 맛있는 식사로 고른 배를 채우고 모닥불 앞에 둘러 모여 수도도 펴고, 퀴즈도 내고 얼마 남지 않은 저녁 시간을 수많은 별들과 함께 보냈다.

토요일 신년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날



을 지키고자, 모든 참여 인원들이 시간이 늦었지만, 자정이 조금 넘어 잠자리에 들었고, 모닥불 잔불 정리도 할 결심자 셋이 모여 2시 반까지 야식과 함께 수다 타임을 가지기도 하였다. 잔불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서야 잠자리에 들었지만, 새벽기도를 위해 모두가 5시가 다 되어 일어나 부랴부랴 집은 안개를 뚫고 벨리 채플로 다시 향해 나아갔다.

우리는 다시 캠핑장으로 돌아갔고, 담임목사님 부부와 전도사님들 그리고 장로님까지 코람데오 캠핑을 응원해주시고 간식과 사랑으로 무장하시고 오셔서 같이 맛있는 식사도 하시고, 게임도 하면서 정말 재미있는 시간을 보낸 것 같다. 사역자들과 함께 어울리는 시간이 더욱 감사했고, 바쁜 와중에도 찾아와 함께 어울릴 수 있었던 그 사랑이 다음 기회에도 이어지길 바라본다.

시간이 짧았었기에 다양한 이벤트들로

채울 수는 없어 아쉬웠지만, 모두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봐서 다음 캠핑이 기대된다. 이번 캠핑도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를 생각하고, 각자 노력하고 배려하며 희생했기에 넘치는 은혜와 사랑 속에서 무탈하게 돌아오지 않았나 생각한다.

우리가 함께하는 많은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거두실 진리 안에 열매가 더욱 귀하고 기쁨 받아보실 수 있도록, 우리 서로 더욱 관심을 갖고, 서로 용기 내어 사랑으로 대화하길 바라고, 긍정적인 모든 것들에 열정으로 나아가며, 결손한 가운데 아름다운 코람데오의 청년의 시간을 함께 만들어가길 간절히 바라며 기도해본다.

한어청년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같이 서 봅시다! 오세요~

| 안세진 성도 |



깨끗한 공기와 주의 사랑이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캠핑은 긴 코로나로 인한 외로운 시간을 견디고 나서 함께한 시간이었기에 더욱 소중한 것 같습니다.

맑은 하늘과 춤지 않은 적당한 날씨, 김현권 목사님께서 만들어주신 맛있는 음식과 집사님들의 헌신,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웅기종기 모여 모닥불을 바라보며 깊은 대화도 나누고 캠핑의 감성을 느끼며 형제 자매들과 좀 더 가까워 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 등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주 안에서 함께 모여 함께 섬기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많은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병욱 성도 |

■ 심방사역

## 기도와 위로 통해 성도님들의 아픔 공감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심방 사역을 시작한 지도 어언 4년이 되어간다.

처음 사역이 시작될 즈음에 저 개인적으로는 몇 달째 걸음을 잘 걷지 못해 슬리퍼를 신으며, 발가락이 제각각인 양말을 신고 걸을 때였다. 심방 사역은 단정한 옷매무새가 기본인데 슬리퍼가 웬 말인가? 왼쪽 엄지 발가락에 난 혹 때문에 구두를 신을 수도 걸음을 걸을 수도 없었다. 발 의사는 수술만이 유일한 치료 방법이며 수술하면 한 달 정도는 걷지 못할 것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그때부터 시작된 나의 기도는 진심으로 사역을 위한 기도로 구두를 신게 해달라고 시도 때도 없이 간절히 기도드렸다. 기도 시작 며칠 후 갑자기 피부가 찢어지며 작은 대추만 한 혹이 쑥 빠져나오는 것이 아닌가? 역시 하나님의 일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는 믿음의 경험을 선물로 주신 추억의 사건이었다.

지금은 팬데믹 기간이라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심방을 자제하는 편이지만 주안예교회에서는 매주 이틀씩 심방 사역을 하고 있다. 목요일 아침 9시에 박민재 목사님, 박찬경, 이미란 전도사님, 심방 국장이 모여 방문해야 하는 성도님 댁을 위하여 주보와 교회 신문 등 간단한 선물 등, 준비물 점검이 끝나면 기도를 드린 후 출발한다.



먼저 발렌시아로 출발하여 5가정을 방문했다. 아무도 안 계신 가정은 다녀갔다는 편지와 현관 앞에서 만나지 못한 가정을 위하여 간절한 기도와 예수님의 씨앗을 남기고 돌아온다. 그중 한 가정은 남편 집사님만 몇 년째 혼자 출석하시면서 아내와

함께 교회 나오기를 소원하셨다. 어느 날은 나에게 전화를 걸어와 아내가 백화점을 갈 것 같으니 백화점에서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만들어 설득해 달라고 부탁까지 하셨다. 예전에도 그 가정을 가끔씩 심방했으나 아내분이 혼자 계실 때는 문을 열지 않으니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심방에는 문을 열어 주셔서 마치 천국 문이 열린 것 같았다.

다음은 아케디아로 향하여 세 가정을 돌아보았다. 다시 벨리로 돌아와 노인 아파트로 향했다. 다리가 제일 불편한 권사님 댁에 도착하면 옹기종기 모여 사는 권사님들이 그곳으로 다 모인다. 교회에서 예배드려 보면 소원이 없겠다는 권사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니 너무 기뻐하며 좋아하신다.

권사님들 중 한 분이 양말을 벗고 계신데 무릎이 아파 양말을 못 신는다고 하신다. 교회에서 준비해간 양말을 신겨드리며 마음속으로 내가 몇 번이나 권사님의 양말을 신겨드릴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얼마 후 주일 광고 시간에 양말 신겨드린 권사님의 소천 소식이 전해졌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사용당할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 드리며 감사함과 행복함으로 나아가자.

| 임용자 기자 |

■ 18기 주안예말씀

### 참가자들 소감 '한마디'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왕하 22:8).” 이것을 시작으로 요시아 왕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함께 전무후무한 개혁을 시작하게 됩니다. 저는 교회 개혁을 꿈꾸며, 함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며, 참여하였습니다.

에스더 이 권사

새해를 맞아 성경 통독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말씀 통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별



하며 영광을 올려 드리기를 소망하며 성경 통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신장현 집사

2022년도에 1독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전체의 로고스 말씀 중에 어떤 레마의 말씀을 주시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읽으려고 합니다. 류명수 집사

2022년도에 더욱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묵상하며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한 열매를 맺기 원하는 마음으로 성경 통독을 이번에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진화 집사

벌써 세 번째 주안예말씀 통독을 하고 있다. 말씀 통독을 하면 할수록 깊고 오묘한 말씀이 내 영혼에 기록 되어짐을 느낄 수 있었다. 사실 틈날 때마다 성경을 읽어야지 했었지만, 용두사미가 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에 반강제로 나를 훈련 시키고 있다. 통독 기간이 끝날 때쯤이면 나의 기도 제목들이 선물처럼 내 안에 와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므로 더욱이 감사하게 된다.

임용자 권사

■ 세네갈 김승주 선교사 편지

■ 니카라과 이필우 선교사 소개

축구장 공사 주민협조 합의



간식 보따리를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고 기뻐하는 아이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늘 저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어깨를 두드려주고 용기를 주고 순간순간 도전을 갖게 해주는, 놀라운 힘을 제공 해주시는 최혁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주안예교회 가족 여러분들의 사랑과 기도로 저는 편안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세네갈은 요즘 기온이 가장 좋은 시즌입니다. 1년 365일이 뜨거운 땡벌이지만 나름 4계절의 면모가 살아있어서 창조주 하나님의 숨씨에 하늘을 향해 엄지척을 올려 드리기도 합니다.

먼 미래에나 있을 줄 알았던 예배의 통제를 2년여 동안 지켜보면서 정말 마지막 때의 환란이 시작 되는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하며 구약에서 드러난 사건들을 묵상해 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신묘막축함을 알턱이 없지요.

이미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해마다 우기철에 침수되는 축구장을 바라보며 안타까워만 할 것이 아니라, 축구장 둘레 총 440m에 콘크리트로 2m 깊이와 15cm 넓이로 외벽 담을 두르고 안 쪽으로 펜스로 울타리를 2m로 올리는 것과, 모래로 덮고 그 위에 마사토를 뿌리고 인조잔디로 마감을 하고, 길이 약 20m의 5계단 정도의 관람석 스텐드를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주민대표들에게 해결을 요청했고, 축구장 공사시에 인건비 부분을 담당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저의 예산에 맞춰 재료비만을 제공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기도제목: 1) 세네갈 땅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도록 2) 참된 제자로 양육될 사람을 만나도록 3) 현지인이든 내국인이든 젊은 사역자에게 이양 되도록. 4) 축구장 조성에 주민 공청회를 통해 인적, 물적 동참이 원만하게 동원되도록. 5) 노후화 되어가는 육신이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강건하도록.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2022년 1월에  
세네갈에서 김승주 선교사 올림.

현지 학생들에 복음 전파



저희에게 주신 중.남미의(니카라과) 비전은 학생들을 위한 복음과 교육사역입니다. 아이티, 베네수엘라와 함께 중. 남미 국가 중 가장 가난한 나라에 속한 니카라과는 어린이와 학생들이 소외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여느 라틴 나라의 상황과 같이 니카라과도 무너진 가정들로 인해 길거리에 버려지는 아이들이나 방치된 아이들이 많은 실정

지만 정부에서는 거의 관여가 없는 상태이며, 공립 학교의 형편도 정부의 교육 재정이 극히 빈약하여 NGO 선교단체들의 도움을 받으며 운영되어지는 실정입니다. (공립학교 중등과정에서는 교과서도 없음)

종교적인 상황은 기독교 인구가(복음주의) 30% 이상이라고 하고, 교회의 모습도 볼 수 있지만, 카톨릭 신앙이 교회에 뿌리 박힌 채 참 진리와 복음이 결여된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의 수를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니카라과에 보내주신 저희 가정의 사역은 젊은 학생들에게 복음(말씀)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사역지로는 2017년부터 Diriomo 라는 도시에 두 공립학교에서 성경 클래스를 허락 받아 9학년 부터 11학년(졸업반) 학생들에게 매주 교양과목을 대신하여 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10 명의 학생 집에 (대부분 소년소녀가장) 매달 가정 방문을 통해 음식과 학용품 및 필요한 약품 그리고 예배 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학교사역 외 다른 사역으로는, 작년 11 월에 두 차례에 걸쳐 허리케인이 지나감으로 큰 피해를 입은 카리브해 지역의 Puerto Cabeza 라는 도시를 방문하여 이재민들에게 식량과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역을 하는 동안 산과 정글인 Lapan 이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는 인디언 미스키토 부족 사람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 도시로 나옴으로 인해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직 단 한 명의 선교사도 부족 지역에 들어오지 않았으며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여, 지난 4월에 처음으로 부족 마을에 들어가 복음 집회와 함께 구제 사역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열방 선교에 마음 가져 주시어 감사를 드리며, 계속 하여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1년 7월, 니카라과에서 이필우 선교사 가정 올림.

■ 음악 칼럼/ 도니체티 '끝없는 환희를 그대에게'

‘결혼축가’ 가 한민족 의식 깨운 찬송가로

도니체티 (Gaetano Donizetti, 1797~1848)의 오페라 「람페르무어의 루치아」를 감상하다 보면, 낮익은 찬송가 멜로디의 곡이 들려온다. 오페라 2막 3장에 나오는 'Per te d'immenso giublio (끝없는 환희를 그대에게)' 라는 곡이 그것인데, 등장인물인 루치아와 아르투로의 결혼식을 축하하며 극 중 하객들이 부르는 합창곡이다. 귀에 익숙한 찬송가 멜로디가 들려오니 반갑기도 한 반면, 결혼식 장면인데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해~' 라는 가사가 계속 떠올라서 당황스럽기도 하다.

찬송가 580 장(통 371장)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은 제목과 가사 내용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한국 고유의 찬송가로 인식하고 있지만, 사실 곡의 선율은 오페라에서 가져왔다. 1901년 미국 먼려회(Christian Endeavor Society)는 도니체티의 오페라 합창곡을 편곡하여 'Hark! Tis the Clarion (나팔소리 들려온다)' 라는 제목의 찬송을

219 일하러가세  
TO WORK, TO WORK  
HAN KUNG OK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노님구신 독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노님구신 독산 이등선에 골짜기와 스물세일군을 부르세 곳  
꿈같이 일어나고 두구가일출 불가 일경이세 일경이가 삼  
천리강산 위 하노님명령 받았으니 삼천리강산 위 하노님명령 받았으니  
삼천리강산 위 하노님명령 받았으니 삼천리강산 위 하노님명령 받았으니  
삼천리강산 위 하노님명령 받았으니 삼천리강산 위 하노님명령 받았으니

223

만들어 찬송가에 실었고, 한국에서는 1931년에 남궁억 선생의 시로 가사를 변경하여 '일하러 가세'라는 제목으로 <신정찬송가>에 수록 후,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시를 지은 남궁억 선생은, 교육으로 나라를 구하고, 신앙으로 나라를 세우기 위해 힘쓴 민족의 선각자이다. 고종 황제의 어전 통역관을 시작으로 경상도 성주 목사, 강원도 양양 군수로 관직 생활을 했으며, 독립협회와 대한협회를 조직하고 황성신문을 창간하기도 했다. 48세의 나이로 기독교에 입교하여 신앙을 통한 구국 운동을 결심하고, 56세에 시골로 내려가 학교를 짓고 교육과 복음 전파, 독립운동에 여생을 바쳤다.

일제는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곡이라는 이유로 이 찬송을 부르는 것을 금지하며, 찬송가를 찢고 불태우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 부르며 소중한 찬송을 지켰고, 독립을 향한 의지를 더욱 공고히 다지며 핍박과 탄압의 모진 세월을 견뎌냈다. | 황성남 기자 |

■ 포토에세이/ 교회에서 받는 세배



1월 첫째 주일에 OC 권사회에서 새해 첫 주일에 아이들한테 한국의 미풍양속 하나를 가르치자고 했다. 1월 2일 OC 채플 주일학교를 예쁜 한복을 입은 세 분의 권사님과 회장님이 방문 하였다.

먼저 예쁜 복 주머니를 사서 세뱃돈을 준비했다. 아이들 의자를 세게 놓고, 권사 세 사람이 한복을 입고 앉으라고 해서 이왕이면 철저히 한국 풍습 따라 바닥에 가부좌를 하고 앉아 세배 받자고 바닥에 앉았다. 어린아기 부터 유년 주일 학교 아이들까지 전도사님께서 한국 세배를 하면서 가르치고, 아이들은 권사님들을 향해 세배를

드렸다. 작은 아이는 복주머니에 10불을 넣고, 유년 주일 학교 아이들한테는 20불을 넣어 주면서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기해라 하는 덕담과 함께 전해 주었다. 많이 뛰어 놀아라. 하는 당부도 곁들여서. 역시 크리스천의 덕담은 세상과 다르다. 주님의 십자가의 균병으로 잘 자라주렴 하는 기도를 머금고 세배를 받았다. 아이들이 보고 따르게 하려고 일부러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어른이 되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함께 고개숙여 인사해 주지 않을까요? | 이에스더 기자 |

'주안에' 는 교우 모두가 참여하여 만드는 뉴스레터입니다. 목장, 사역팀 소식을 비롯, 간증과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많이 보내주세요. iccnnews123@gmail.com

발행처: 주안교회 문서사역국 / 문서사역국 명단: 오희경(국장), 김선희, 나형철, 류명수, 모니카 김, 유영애, 이에스더, 이혜윤, 조용대, 황성남(기자) / 양영, 박민, Paul Yang (사진)

편집디자인: 김윤영